

## PA-54

**중서부 간척지와 중부지역 논에서 목우의 질소시비량과 파종량별 생육 및 수량**장영미<sup>1</sup>, Sharavdorj Khulan<sup>1</sup>, 고유하<sup>1</sup>, 조진웅<sup>1\*</sup><sup>1</sup>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**[서론]**

사료용 벼는 곡물과 벧짚을 통째로 수확해 가축 사료로 이용하는 것으로, 현재 쌀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간척지에서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추세다. 간척지에 사료용 벼를 재배함으로써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률의 증진과 소에 급여해야 하는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따라서, 본 연구를 통해 중서부 간척지와 중부지역의 일반 논에서 목우 품종의 생육 및 수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.

**[재료 및 방법]**

본 시험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석문 간척지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위치한 부속목장에서 실시되었다. 시험에 사용된 품종은 목우이며, 각각 2021년 6월4일과 6월3일에 이앙하였다. 파종량은 표준파종량을 기준으로 100%(22주), 150%(33주)를 파종하였고, 시비량은 기준시비량의 대조군, 100%(200g), 150%(300g), 200%(400g)로 각각 6월11일, 6월14일에 시비하였고, 간척지에는 7월16일, 8월11일, 일반논에는 7월23일, 8월13일에 기준시비량의 80%를 추비하였다. 출수기, 유숙기, 황숙기에 3반복씩 채취하여 조사하였고,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생육시기별 초장, 간장, 엽면적, 생체중, 건물중, 수분함량 등을 조사하였다.

**[결과 및 고찰]**

간척지에서는 초장과 간장이 황숙기에 각각 181.1cm, 129.8cm로 파종량은 33주, 시비량이 200%에서 가장 높았고, 파종량 22-33주, 시비량이 100-150%에서도 초장이 171cm에서 180.7cm로 높았다. 반면, 일반논에서는 유숙기에 초장이 176.6cm로 파종량은 22주, 시비량은 200%에서 가장 높았다. 일반논에서는 출수기에 초장과 간장이 간척지에 비해 높았지만 유숙기, 황숙기로 갈수록 간척지에서 더 높은 생육을 보였다. 엽면적은 일반논에서 파종량 33주, 시비량이 200%에서 10.0으로 가장 높았고, 황숙기에 9.6으로 뒤를 이었지만, 간척지에서는 일반논에 비해 2.3-5.7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. 생체중과 건물중 역시 간척지에 비해 일반논에서 대략 1.5-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. 수분함량은 간척지와 일반논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.

**[사사]**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사업(과제번호:PJ013882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jwcho@cnu.ac.kr Tel. +82-42-821-7824